Kobe University Repository : Kernel

PDF issue: 2025-07-01

일본의 2020 년 학비 감액 운동 검토

미츠모토, 시게루
윤, 태우

(Citation)
高等教育における経済的負担軽減及び修学支援に係る法・制度・行財政の日韓比較研究

(Issue Date)
2021

(Resource Type)
research report

(Version)
Accepted Manuscript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9015

KOBE UNIVERSITY

JSPS 과학연구비 기반 연구(C)19K02864(대표자 : 와타나베 아키오 2019-21 년도)
'고등교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수학 지원에 관한 법·제도·행재정 한일 비교연구' 기고(4)

일본의 2020 년 학비 감액 운동 검토

The campaign for reduction of tuition in 2020 Japan

미츠모토 시게루*

MITSUMOTO Shigeru

주제어 : 학비(수업료) tuition, 학비감액운동 campaign for reduction of tuition, COVID-19 에피데믹 COVID-19 epidemic,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들어가며

・ 과제 및 방법

본고는 2020 년 일본에서 전개된 학비감액운동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내건 요구들과 대학의 대응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리고 운동이 제기한 논점 및 의의를 밝혀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인 학비감액운동은 학생(대부분 주체는 4(6)년제 대학 학생이었지만, 대학원·단기대학·전수학교 학생도 있었다)이 학교 및 정부를 대상으로 벌인 항의·요구 활동이었다. 연구 대상으로 하는 기간은 2020 년 3 월부터 대략 7 월 쯤까지다. 이 기간 동안 학비감액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나,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운동은 대학·정부를 대상으로, 문서 형태나 기자회견 등 전통적인 방법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이뤄졌다. 2020 년은 COVID-19 에피데믹으로 인해 집회나 야외 데모를 하기가 어려웠다. 대신 활용된 인터넷 서명 활동은 2020 년 운동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학생과 대학이 주고받은 문서와 함께 SNS 를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목소리도 자료로 이용하였다. 학생들의 목소리는 인터넷 서명 사이트 Change.org 의 '캠페인'(개별 서명활동)에 게재된 것을 중심으로, Twitter 게시물을 보조적으로 이용하였다[1].

[1] Change.org (https://www.change.org/) 를 통해서는 2021 년 1 월 16 일·17 일 사이에 '일률 학비 반액을 요구하는 액션'에 참가한 대학의 캠페인 본문(요구서)을 수집했다. 그 뒤, 2021 년 10 월 10 일부터 10 월 24 일 사이, '일률 학비 반액을 요구하는 액션' 참가 대학의 '경위'(대학과 교섭 경과보고 등), '일률 학비 반액을 요구하는 액션' 참가 대학 이외 대학의 캠페인 본문, Twitter(https://twitter.com)를 통해 확인 가능한 학생의 요구서, 각 대학의 답변 문서 등을 수집했다.

· 용어에 대하여

학비라는 용어는 대학 등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일률적이지는 않는다. 개별 대학에서는 수업료 및 학생이 대학에 대해서 지불하는 요금('납부금')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생회비' '후원회비' 등 대학 이외의 단체가 관리하는 여러 회비 등 잡다한 요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적으로는 학비는 넓게는 취학에 드는 비용으로 여겨지고 있다. 학술 용어인 교육비와 같은 의미로 취급해도 좋을 것이다.

학비감액운동은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일본 정부가 국제인권 A 규약 13 조 유보를 철회한 2012 년 이후 운동에서는 '무상교육의 점진적인 도입'(또는 '무상화')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어 왔다. 2020 년 운동에서도 '무상고등교육'을 요구하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20 년 학생들이 요구한 것은 학비 감액 뿐만이 아니었다. 4 월에 신학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강이 연기되어, 교내에 출입이 금지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시설·설비를 감염 위험을 동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러한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할 것 등, 여러 요구를 내걸었다. 학비 감액은 이러한 요구들 중 하나로, 대학이 여러 요구사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의 요구사항으로서 내걸어진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요구 활동은 수업료·시설정비비 등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는 학비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운동 중에는 수업료 외에 '시설정비비' '교육충실비' '실습비' 등 명목으로 대학[2]이 학생에 청구하고 있는 요금, 나아가 '학생회비' '후원회비' 등 대학 이외 조직이 받아 관리하는 요금이 폭넓게 감액·반환을 요구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것들을 학비라고 부를지는 대학에 따라 다양하지만, 학생 사이에서는 학비 감액이라는 말이 넓게 사용되었다. 또한, 최종적으로 전개된 타 대학 간 연계 운동에서도 학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일련의 활동·운동을 총칭하여 '학비감액운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 2020 년 학비감액운동

· 1-1 운동의 경과

[2] 학생이 대학에 지불하는 비용을 관리하는 것은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공립대학법인 등 법인, 또는 공립대학을 설치하는 지방자치체다.

일단은 운동의 경과를 개괄적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2020 년 봄, 각 대학은 2020 년 1 학기 개강일자 및 실시 방법을 어떻게 할지 검토를 이어갔다. 3 월 24 일 문부과학성[3]이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도 좋다는 것과 60 시간을 초과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취득한 학점도 졸업 요건에 포함할 것 등을 통지[4]하자, 학기 시작을 늦추거나 학생이 캠퍼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움직임이 확대되어 갔다. 또한 문부성은 각 대학에 대해서 고등교육수학지원신제도·대여형 장학금의 '가계가 급변한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도의 '주지' 등을 내고 있다[5]. 이렇듯 문부성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학생 단체가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국회에 전달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6].

4 월 7 일, 정부는 7 도부현에 코로나 19 대응으로 개정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16 일에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맘때, 몇몇 대학에서는 대학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연대 서명 활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장 빠르게 서명을 시작한 것은 4 월 5 일 아오야마가쿠인 대학의 학생이었다. 이어서 11 일에 리츠메이칸대학, 13 일에 와세다대학, 14 일에는 아키타공립대학, 다이토분카대학, 15 일 타마미술대학 등 4 개 대학으로 이어졌다. 16 일 이후는 건수가 급증 하여, 1 주 뒤인 4 월 22 일까지 대학 79 곳으로 불어났다[7].

한편 4 월 하순까지 언론의 관심은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강한 비난 여론 쪽이었다[8]. 이를 반전시킨 것은, 학생단체 '고등교육무상화 프로젝트

[3] 한국의 교육부에 해당함. 이하 '문부성'. 번역자 주.
[4]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장 「레이와 2 년도(2020 년도) 대학 등 수업 개시 등에 대하여(통지)」 2020 년 3 월 24 일. 덧붙여, 일련의 문부성 통지 등에 대해서는 미츠모토 시게루『2020 년의 대학위기-코로나 위기가 묻는 것』크로스컬처출판, 2021 년 5 월에서 정리했다.
[5]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유학생과, 종합교육정책국 생애학습추진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한 학생 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주지)' 2020 년 3 월 26 일.
[6] 渡部昭男「「教育無償化」論議の経緯と特徴(4) —2020 年第 201 回の国会審議から—」『大阪成蹊大学紀要』7 巻、2021 年 2 月、242 頁。
(와타나베 아키오「'교육무상화' 논의의 경위와 특징(4)—2020 년 제 201 회 국회 심의에서—」『오사카세이케이대학 기요』7 권, 2021 년 2 월, 242 쪽.)
[7] 서명 운동의 실제 건수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서는 「新型コロナによる校内閉鎖、オンライン授業に関する学費減額、返還を求める署名(신형 코로나에 의한 교내 폐쇄, 온라인 수업에 관한 학비 감액, 반환을 요구하는 서명)」
일본사립대학교직원조합연합『일본사대교련·제 33 회 정기 대회 의안서 자료편[대회 배부판]』2020 년 8 월, 에 따른다.
[8] 필자가 아는 한에서는 전국지에서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다룬 것은 2020 년 4 월 19 일『아사히신문』조간 기사, 「大学封鎖、逆境の春 学生「学費減額して」(대학 봉쇄, 역경의 봄/학생 "학비 감액하라")」가 최초다.

FREE'(이하 'FREE'로 줄인다)였다[9]. 4 월 22 일, FREE 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생 13 명 중 1 명이 퇴학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교도통신을 거치며 알려져, 전국지 등에서 다뤄지며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산했다.

나아가 1 주 뒤인 4 월 29 일에는 말그대로 186 곳 대학에서 서명 운동이 이뤄지게 되었다. 서명 운동의 건수는 5 월 5 일까지 207 곳 대학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립대학 195 곳, 국립대학 8 곳, 공립대학 4 곳이다[10].

5 월 4 일, 정부는 나아가 '긴급사태선언'을 5 월 31 일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이 결과 2020 년 1 학기는 전국 대부분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동시에 수업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비대면 수업의 주요한 목적은, 감염증 대책으로서 학생이 캠퍼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수업 뿐 아니라 대학의 시설 이용 및 수업 외 활동도 크게 제약되게 되었다. 2020 년 학비감액운동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나타났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뒤에 다룰 것처럼, 빠른 경우에는 4 월 하순에 학생들이 요청서와 서명 자료를 제출하고 대학과 교섭을 했다. 대학이 학생의 요구에 응하여 학비를 감액·반환한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대학도 학생에 대한 급부금을 시작으로 경제적 지원과 그 외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의 요구 운동은 대학과 교섭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갔다[11].

· 1-2 학생의 요구

[9] FREE 는 2018 년 9 월에 결성. 학비 및 장학금에 관하여 학생의 실태를 밝혀내기 위한 설문조사, '랠리'라고 부르는 가두 발언으로 실태를 전하는 활동 등을 진행했다. 멤버는 전문학교 및 30 곳 이상의 대학 등의 학생·대학원생 130 명,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30 명 정도다. FREE「重い学費の負担、奨学金返済の恐怖 真の無償化を求め、「出る杭」になる(큰 학비 부담, 장학금 변제의 공포/진짜 무상화를 요구하여 '모난 돌'이 되다)」『Journalism』 2020 년 3 월호.

[10] 각 대학 서명운동 시작 일자는 현재 일부를 제외하고는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여기에서 시작 일자는「新型コロナによる校内閉鎖、オンライン授業に関する学費減額、返還を求める署名(신형 코로나에 의한 교내 폐쇄, 온라인 수업에 관한 학비 감액, 반환을 요구하는 서명)」『일본사대교련·제 33 회 정기 대회 의안서 자료편』(2020 년 8 월, 24-25 쪽)을 참조했다.

[11] 정부에 대한 요구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이뤄졌다. 아오야마가쿠인대학 등 '학비 감액을 요구하는 학생 유지(学費減額を求める学生有志)'(「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よるキャンパス閉鎖とオンライン授業への移行を受けた学費減免に関する要望書(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의한 캠퍼스 폐쇄와 온라인 수업으로 이행에 대한 학비 감면에 관한 요망서)」2020 년 4 월 22 일), 및 '일률학비반액을 요구하는 액션(一律学費半額を求めるアクション)'(참가 대학 등은 표 1 에 기재)이다.

학생의 요구는 크게 급부금 지급과 학비 감액·반환 등 경제적인 요구와, 도서관 등 시설을 가능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온라인 수업 수강 환경을 중심으로 교육 환경 정비, 수업 외 활동·취직 활동을 포함하는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정보 공개 등으로 구분된다. 경제적인 요구를 내걸고 있는 것은 공통되지만, 조건 정비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요구도 초기 단계부터 나타난다.

가장 앞서서 서명 운동을 시작한 아오야마가쿠인대학의 학생은, 요구사항으로서 '시설 이용료 지불 면제' '통신환경·PC 지급'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구제 장학금 설립' 등 4 가지를 내걸었다. 리츠메이칸대학 학생도 학비 반환과 함께 '학비 반환에 관한 명확한 방침 제시'를 요구했다. 다이토분카대학 학생은 시설 사용료, 자격증 강좌 수강료, 오리엔테이션 숙박비 등 세세한 비목을 들면서 이것들을 반환할 것과 '학비 사용 용도의 구체적인 내역(하루치 산출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공동체가 사라진 데 대한 보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종식 뒤, 신입생 환영 행사 개최 확약' '하반기에도 통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대학의 대책 설명'도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다. 도시샤대학 학생은 타 대학 요구에서는 볼 수 없는 경제적 요구로서 '내년도 봄학기까지 한정으로 휴학비 면제'를 내걸었다. 이외에도 '연기된 건강진단 등 실시' '증명서 발행 절차의 간편화' '캠퍼스 출입 제한 조치가 연장될 경우, 대학 도서관을 일시 개방할 것' 등, 많은 요구를 내걸었다.

표 1·표 2 에서는 2020 년에 이뤄졌던 학비 감액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 중, 요구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을 정리한 일람표다. 여기에는 다이토분카대학, 도시샤대학처럼 학생이 많은 요구사항을 내건 대학이 있는 한편, 간단하게 학비 감액·반환만을 요구한 대학도 적지 않다.

· 1-3 대학의 대응

4 월 하순에는 기존 장학금 등과 별도로 학생에 대하여 급부금을 지급하는 대학이 나타났다. 4 월 16 일 슈지츠대학(오카야마현)이 3 만 엔을 급부할 것을 발표했다[12]. 4 월 21 일에는 메이지가쿠인대학(요코하마시)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5 만 엔을

[12] 西井泰彦（学校法人就実学園理事長）「遠隔教育のための情報機器の取得費用等の支給について」2020 年 4 月 16 日。
(니시이 야스히코(학교법인 슈지츠 학원 이사장)「원격 교육을 위한 정보 기기 취득 비용 등의 지급에 대하여」2020 년 4 월 16 일.)

급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3]. 이후 많은 대학이 학생에 대하여 급부금을 지급하게 되어갔다.

일본사립대학교직원조합연합 서기국 조사에 의하면, 학생에 대한 급부액이 50,000 엔인 경우가 102 개교 중 72 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000 엔이 14 곳이다. 최고액은 10 만 엔(3 곳)이었다[14]. 일본사립대학협회가 설치한 사학고등교육연구소가 진행한 조사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15].

이러한 학생에 대한 급부금은 대부분이 '교육환경 정비' '학생 지원' 등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한편, '학비 반환·감액'을 한 대학도 소수이지만 존재한다.

그 중 한 곳인 구시로공립대학은 '구시로공립대학 수학 지원금' 명목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20,000 엔~65,000 엔을 반환했다. 내역은 '수학 지원금 20,000 엔 급부 및 수업료 1 개월분 반환'이다. 반환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수업료 1 개월분'을 실제 지불한 수업료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16].

와코대학은 '대면 수업 실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표현학부 예술학과의 모든 학생(휴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2020 년도 실험 실습비를 40% 감면했다. 반환 금액은 2017 년도 이후 입학자는 2 만 엔, 2016 년도 이전 입학자는 1 만 2 천 엔이었다[17].

도호쿠예술공과대학은 '수학지원을 위한 수업료 일부 반환'으로서 수업료에 포함되는 시설정비비 해당분을 학생에 반환했다. 동 대학의 수업료는 학과에 따라 연 113 만 5 천 엔부터 122 만 엔까지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시설정비비가 얼마인지는 명시되지 않는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수업료 중 시설사용료 상당액을 '원격 수업'에

---

[13] 村田鈴音（明治学院大学学長）「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に対する明治学院大学の対応について」2020 年 4 月 21 日。
(무라타 레오(메이지가쿠인대학 총장)「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메이지가쿠인대학의 대응에 대하여」2020 년 4 월 21 일.)

[14] 「【全学生対象】遠隔授業などの修学環境整備のための給付実施私立大学一覧([전교생 대상]원격 수업 등의 수학 환경 정비를 위한 급부 실시 사립대학 일람)」일본사립대학교직원조합연합 앞의 자료, 27 쪽.

[15] 白川優治「コロナ禍における学生の経済的状況の悪化とその支援の状況と課題」私学高等教育研究所『コロナ禍の私立大学』2020 年 11 月、24 頁。
(시라가와 유지「코로나 상황 속 학생의 경제적 상황 악화와 그 지원 상황과 과제」사학고등교육연구소『코로나 상황의 사립대학』2020 년 11 월, 24 쪽.)

[16] 구시로공립대학에서는 수업료를 4 단계(면제, 3/4 감액, 1/2 감액, 1/4 감액)로 감면하고 있다. 「釧路公立大学修学支援金について(구시로공립대학 수학 지원금에 대하여)」(https://www.kushiro-pu.ac.jp/g1ubjq0000003d1q.html).

[17] 半谷俊彦（和光大学学長大学）「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伴う学生への緊急経済支援について」2020 年 4 月 30 日（7 月 10 日追記）（https://www.wako.ac.jp/news/2020/07/710.html）。
(한야 토시히코(와코대학 총장)「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학생에 대한 긴급 경제 지원에 대하여」2020 년 4 월 30 일(7 월 10 일 추가)(https://www.wako.ac.jp/news/2020/07/710.html).)

대응하기 위한 재택학수지원금으로 2,376 명에 대해 총액 76,004 천 엔(학생 1 명당 약 30 천 엔)을 반환했다". 단, 보고서는 "재원은 사업 수정 및 경비 삭감 등을 통해서 충당했다"고도 밝히고 있다. 엄밀히는 '시설정비비' 상당분을 계산한 것은 아닌 듯하다[18].

교토예술대학은 수업료 등 납부금 중 시설정비비 일부를 단계적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그 내용은 시설설비비 1 개월분 금액을 계산해서 대학 캠퍼스 출입 제한 기간의 개월 수에 따라 반환한다는 내용이다. 단, 캠퍼스 출입이 제한된 달의 시설정비비 전액이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정비 중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면적의 비율(77%)을 반환한다는 것이다[19]. 학생에 대한 반환 예정액은 2020 년도 입학자의 경우, 금액이 가장 적은 문예표현학과, 아트프로듀스학과는 14,000 엔(7,000 엔×2 개월), 가장 많은 영화학과, 캐릭터디자인학과, 정보디자인학과는 46,000 엔(23,000 엔 × 2 개월)이다. 대학원 예술연구과 예술전공 석사과정은 40,000 엔(20,000 엔×2 개월), 동 박사과정은 20,000 엔(10,000 엔×2 개월)이다[20].

· 1-4 대학(학교법인)과 교섭

대학 측에 서명을 제출한 것까지 확인되는 곳은 리츠메이칸대학(4 월 11 일 시작, 4 월 19 일 제출), 조치대학(4 월 15 일 시작, 4 월 22 일 제출), 메이지대학(4 월 16 일 시작, 5 월 5 일 제출), 토요대학(4 월 17 일 시작, 제출일자 불명), 세이조대학(4 월 20 일 시작, 제출일자 불명)이다. 이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이 서명 자료를 제출했다고는 밝혔지만, 제출 뒤 서명 자료가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또 학생들은 대학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학생이 서명을 제출하여, 대학으로부터 응답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곳은, 다이토분카대학(4 월 14 일 시작), 도시샤대학(4 월 15 일) , 타마미술대학(4 월 15 일 시작), 다이토가쿠인대학(4 월 16 일 시작), 가나가와대학(4 월 16 일 시작), 미야기가쿠인여자대학(4 월 20 일 시작), 도쿄가쿠게이대학(4 월 26 일 시작), 테이쿄대학(5 월 1 일 시작)이다. 이중 도시샤대학, 타마미술대학, 다이토가쿠인대학,

[18] 「令和 2 (2020) 年度事業報告(레이와 2(2020)년도 사업보고)」(https://www.tuad.ac.jp/wp/wp-content/uploads/2021/04/2021_3-6-jigyohokoku.pdf)
[19] 「［通学課程］2020 年度の就学支援に向けた「施設・設備費」の一部返金について ([통학과정]2020 년도 취학 지원을 위한 '시설·설비비'의 일부 반환에 대하여)」(https://www.kyoto-art.ac.jp/news/info/546).
[20] 「2020 年度 芸術学部施設設備費一覧(2020 년도 예술학부 시설 설비비 일람)」(https://www.kyoto-art.ac.jp/student/wp-content/uploads/2020/04/gakubu.pdf) 。.

미야기가쿠인여자대학에서는, 서명 운동을 벌인 학생이 대학 측과 대면하여 입장을 나눈 사실이 알려졌다. 타 대학은 메일을 통하여 문서를 주고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학생과 대학의 교섭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여다 보도록 한다.

・ 다이토분카대학

다이토분카대학에서는 4 월 22 일에 학생이 서명과 탄원서를 메일을 통하여 대학 측에 보냈다. 이에 대하여, 대학 측으로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해 주었으면 한다"는 답변을 당일 받았다. 홈페이지 게시물의 요점은 ①학비 변경은 없다. ②온라인 수업에 드는 비용도 학비에 포함된다. ③문부성 입장도 학비는 일정 기간(졸업까지 기간)에 이뤄지는 교육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답변에 대하여 학생은, ①대학이 '캠퍼스 출입금지 및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생 측 불이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 ②온라인 수업에 드는 비용을 모두 현재 재학생이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성실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21].

다이토분카대학 학생의 발언은 같은 날(4 월 29 일) NHK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되었다. 같은 날, 다이토분카대학은 '다이토 학생 특별지원금'으로 온라인 정비비 5 만 엔을 전교생에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학 결정에 대해 학생은 "본 캠페인의 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급'과 '반환'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운동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명 운동 참여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22]. 이후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학생은 운동을 계속하여 6 월에는 대학(학무국장 등)과 면담한 듯 하다[23].

---

[21] 永山凛（署名発起人）「大学側の返答」2020 年 4 月 22 日、change.org「大東文化大学におけ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入構禁止及びオンライン授業について学費の返還を求めます！」の「進捗状況」)
(나가야마 린(서명 발기인) 「대학 측 답변」2020 년 4 월 22 일,
change.org「다이토분카대학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캠퍼스 출입금지 및 온라인 수업에 대해 학비 반환을 요구합니다!」의 '진전 상황'))

[22] 永山凛「報告と相談」2020 年 4 月 30 日（前掲「進捗状況」）。
(나가야마 린「보고와 상담」2020 년 4 월 30 일(앞의 '진전 상황'.)

[23] 永山凛「学務局長面談の報告」2020 年 6 月 8 日（前掲「進捗状況」）。
(나가야마 린「학무국장 면담 보고」2020 년 6 월 8 일(앞의 '진전 상황').)

· **도시샤대학**

도시샤대학 서명은 타 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이뤄졌다(표 2 참조). 서명 발기인이 서명 제출 뒤 대학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24]. 대학 측과 대화 자리에서 학생들로부터는 "정부가 대학 측이 취하는 학비 감액 조치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안에 포함되는 경우 감액은 이뤄지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대학 측은 그 경우에는 "총장에게 그러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겠다"고 답하고, 나중에 학생 측에 문부과학성이 추진하고 있는 수업료 등 감면 등에 관한 보조금(지원 소요경비의 1/2 이내를 조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 **도호쿠가쿠인대학**

도호쿠가쿠인대학에서는 4 월 24 일에 학생이 대학 측에 서명 자료를 제출했다. 당일까지 서명 수는 목표인 1000 건에 이르지 못했지만 다음 날인 25 일부터 대학이 교내 출입금지 조치를 하는 데 따른 대응이었다고 한다[25]. 이에 대하여 4 월 30 일까지 사이에 대학 측의 답변이 있었다. 그 내용은 ①학비 감면, 일부 반환이라는 학생 요구에 응할 수 없다. ②이번 대학의 조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 및 정부·자치체의 긴급사태조치인 휴업 요청에 근거해 취한 출입금지다. ③따라서 이번 조치가 채무불이행이라는,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④대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원격 수업 실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주기 바란다, 라는 내용이었다[26].

이후에도 학생 측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5 월에 총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업료 내역에 대해서 재차 설명을

[24] 「5 月 20 日に行われた同志社大学との懇談についての報告 大学からの回答についての概要(5 월 20 일 이뤄진 도시샤대학과 간담회에 대한 보고/대학으로부터 답변에 대한 개요)」(서명 대표자 일동).

[25] 小高紗季（署名発起人）「1000 名達成のお礼」2020 年 4 月 27 日（change.org「東北学院大学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措置に対する学費減額を求めます」の「進捗状況」）。
(오다카 사키(서명 발기인)「1000 명 달성에 대한 감사 인사」2020 년 4 월 27 일(change.org「도호쿠가쿠인대학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조치에 대한 학비 감액을 요구합니다」의 '진전 상황').)

[26] 대학 측 「回答(답변)」은 일시적으로 대학 홈페이지에서 공표되어 있었던 듯 하지만, 현재는 볼 수 없다. 여기에서는 해당 「回答(답변)」을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SNS 게시물(@Dkundayo_2 씨, 2020 년 4 월 30 일 트윗)을 참조했다.

요구하자, ‘보호자로부터 그러한 문의는 없었기 때문에 설명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학생은 밝히고 있다. 이 답변에 관련해서 학생은, 보호자가 조만간 개최되는 ‘후원회 총회’의 서면 결의 엽서를 통해 대학을 대상으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7]. 그 뒤 경과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 도쿄학예대학

도쿄학예대학에서는 서면으로 여러 차례 대화가 오갔다. 학생은 대학 측에 ①학칙에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할 것, ②COVID-19 에 동반하는 학습권 침해 상황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여, 모든 학생에 대해 수업료 상당액을 반환할 것. 상당액에 대해서는 학생과 대학 측의 협의 하에 결정할 것, ③수업료 반환에 따라 대학 운영 등에 관한 비용 지출에 지장이 생길 경우, 문부과학성에 운영교부금 증액 등 특례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 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대학 측은, ①수업 횟수가 부족하지 않은 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수업료는 시설 이용료 뿐 아니라 대학 운영 전반에 이용되고 있는 점, 학습 및 수업 외 활동 제한에 관해서도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것 등을 검토하고 있는 점, 대학의 시설 이용 제한은 감염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도쿄도가 ‘기본적으로 휴업을 요구하는 시설’에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유라는 점을 들어, 학칙 개정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②수업료 상당액 반환은, 학칙 개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 ③문부과학성에 운영비 교부금 증액 등을 요구하는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28].

대학 측 답변에 대하여, 학생은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하여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있는 점과, 대학이 신설한 대여장학금[29](10 만 엔)에 대해서는 변제 기한(2 년) 중 변제할 수 없는 학생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학습권 보장을 해야 하는 장본인은

---

[27] 小高紗季「近況について」2020 年 5 月 27 日（前掲「進捗状況」）。
(오다카 사키「근황에 대해서」2020 년 5 월 27 일(앞의 ‘진전 상황’).)

[28] 副学長（学部教育・学生支援担当）濱田豊彦「「東京学芸大学に授業料の返還と文部科学省に支援を求める会」として署名を集め、提出された要望について、以下の通り回答します。」2020 年 5 月 22 日。
(부총장(학부교육·교육지원담당) 하마다 토요히코「‘도쿄학예대학에 수업료 반환과 문부과학성에 지원을 요구하는 모임’이 서명을 모아, 제출된 요청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답변합니다.」2020 년 5 월 22 일.)

[29] 한국의 통상적인 장학금 보다는, 변제 의무가 있는 학자금 대출과 유사하다(번역자 주).

국가이고, 대학에는 국가의 그러한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대리인으로서 책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서면을 보내, 재차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정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무상고등교육을 실현하기까지 기간과 과정을 명확히 한 계획을 나타내도록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30].

이에 대하여 대학 측은, 수업료 면제는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과, 장학금 변제 기간은 생활복지자금 대출 제도의 긴급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 및 타 대학에서의 대출 제도를 참고로 했다는 점을 설명하기만 하는 수준에 그쳤다[31]. 또한, 학생 실태조사는 대학의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서 하는 데 그치고,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32]. 그러는 사이, 학생은 서명 취지에 동의하는 교원과 함께 코가네이시의회에 진정을 내어(6 월 23 일 채택), 문부과학성에 '본교를 시작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특례적인 예산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다(7 월 13 일)[33].

・ 서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예/대학 측의 수령 거부

학생이 진행한 서명 운동의 결과물은 반드시 전부 대학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릿쿄대학 학생은 2020 년 4 월 16 일에 온라인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 뒤 4 월 25 일에 대학 측이 5 만 엔 일률 지급과 각종 장학금에 대하여 통지한 데 따라 서명 운동을 마치고, 모은 서명 자료도 '제출 전에 학교 측으로부터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34]. 타쿠쇼쿠대학에서는 4 월 18 일에 학생이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명 발기인은 서명 건수가 300 건과 500 건에 달할 때마다 보고를

---

[30] 東京学芸大学に授業料の返還と文部科学省に支援を求める会「要求書」(5 月 22 日付回答に対する要求書。文書名はついていない) 2020 年 5 月 25 日。
(도쿄학예대학에 수업료 반환과 문부과학성에 지원을 요구하는 모임 '요구서'(5 월 22 일 답변에 대한 요구서. 문서 제목은 따로 없다.) 2020 년 5 월 25 일.)

[31] 하마다 토요히코「回答(답변)」(5 월 25 일부 요구서에 대한 답변. 문서 제목은 따로 없다.) 2020 년 6 월 5 일).

[32] 하마다 토요히코「回答(답변)」(6 월 27 일부 학생 측 요구서에 대한 답변. 문서 제목은 따로 없다.) 2020 년 7 월 7 일).

[33] 東京学芸大学に授業料の返還と文部科学省に支援を求める会「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よる 高等教育支援に関する要望書」2020 年 7 月 13 日。
('도쿄학예대학에 수업료 반환과 문부과학성에 지원을 요구하는 모임'「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고등교육 지원에 관한 요망서」2020 년 7 월 13 일.)

[34] 菅野翔佳 (署名発起人)「【署名終了のお知らせ】たくさんの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2020 年 4 月 26 日 (change.org「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立教大学のオンライン授業・大学施設閉鎖に伴う春学期分の学費一部免除」の「進捗状況」)。
(스가노 쇼카(서명 발기인)「[서명 종료 알림]많은 협력 감사드립니다」2020 년 4 월 26 일(change.org「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릿쿄대학 온라인 수업·대학 시설 폐쇄에 동반한 학비 봄학기분 일부 면제」의 '진전 상황')

해왔지만 7 월 11 일 독자적인 장학금, 원격 수업 지원금, 각종 시설 개방 등 일정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을 이유로 중지했다. 대학 측에 서명 자료를 제출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학생이 서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도 있다.

와카야마대학에서는 학생이 4 월 16 일에 서명 운동을 시작해 400 건 정도가 모였다. 그러나 대학 측은 그 서명 자료 수령을 거부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수령 거부 이유는 '학교 외부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 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와카야마대학 학생은 7 월에 '와카야마 모임'을 결성, 서명 자료를 와카야마시의회·현의회에 제출하여 청원을 진행했다[35].

2. 고찰

· 2020 년 학비감액운동의 논점

· (1) 학비 수준, 내용의 적절성

학생이 운동 과정에서 나타낸 요구 사항은,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포함한다. 그 중 학비에 관해서는 일본 고등교육의 학비 부담이 애초에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캠퍼스 출입금지를 시작으로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이 취해지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기존과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것으로 크게 나뉜다.

전자에 관해서는 서술한 것처럼 'FREE'가 4 월 22 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설문조사 결과 중 '학생 13 명 중 1 명꼴로 퇴학을 고민'[36]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 등을 통하여 집중 보도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부모 등의 수입 감소와 학생 아르바이트 기회 소실이라는 2020 년 COVID-19 에피데믹에 따라 발생한 사태는, 학비 부담의 무게가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대학 학생의 주장을 보면 여태껏 학비 부담이 과했다는 지적이 엿보였다(타마미술대학·타쿠쇼쿠대학). 이전부터 문제였던 일본 대학의 높은 학비

[35] 「学費半額、学生ら諸願県議会・和歌山市議会に署名 国への意見書提出求める」『朝日新聞』2020 年 9 月 16 日付朝刊（和歌山全県版）。
(「학비 반액, 학생들 소원 현의회·와카야마 시의회에 서명/정부에 의견서 제출 요구하다」『아사히신문』2020 년 9 월 16 일자 조간(와카야마 전현판).)

[36] FREE 가 진행한 설문조사(「新型コロナ感染拡大の学生生活への影響調査(신형 코로나 감염 확대의 학생 생활에 대한 영향 조사)」조사 기간 4 월 9 일~4 월 27 일)의 '아르바이트 수입 감소 및 부모님 수입 감소 등으로 대학 등을 그만둘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고민하고 있다' '그만두기로 했다' '그만두지는 않지만 휴학을 고민' 합계. 중간 집계 단계에서는 학생 7.8%가 '퇴학을 고민하고 있다'(중간 집계)고 답변하고 있는 점을 보도한 것.

부담에 대한 지적이 코로나 위기를 통하여 다시금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후자는 캠퍼스 출입금지를 계기로 표면화 되었다. 즉, 대학이 여태껏 학생에 요구해 온 시설정비비, 교육충실비 등 비용을 시설·설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학생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수업료를 두고는 대면 수업과 질적으로 다른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을 전제로 설정된 수업료 등에 적합한 것인지, 많은 대학에서 학생이 의문을 나타냈다. 대학이 학생을 대상으로 상정해 온 연구·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학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2020 년 상황이 야기한 새로운 논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2) 대학의 학비 감액에 대한 시비

학비 감액은 학생들의 중심적인 요구 사항인 동시에, 대다수 대학이 거부한 것이었다. 대학 측의 학비 감액에 대한 시비는, 2020 년 학비와 관련한 주요한 대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비 감액의 시비에 관해서는, 이미 본 (a)코로나 위기 속에서 종래의 학비 수준·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 외에도, (b)학생이 학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c)대학이 학생에 대하여 상정한 연구·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없더라도 학생으로부터 학비 감액 청구를 피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게 되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각 대학은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었지만, 대부분 대학은 학비 감액·반환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각 대학이 학비 감액·반환을 하지 않는 이유로 든 사항은 다르지만, 이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학생의 교내 출입금지는 감염증 대책으로서 필요한 조치이며,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부담하도록 하는 학비는 졸업(학위 취득)까지 기간 전체에 걸쳐 드는 비용의 총액을 재적 기간으로 나눈 것이며, 이용료 성격을 띤 것이 아니다.
③ 온라인 수업 환경 정비를 위해서도 비용이 든다.
④ 실습 및 실기 과목 등 긴급사태선언 하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형태의 교육은, 실시 조건이 정비된 뒤 해나간다.
⑤ 가계의 급변 등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취한다.

①은 도호쿠가쿠인대학, 리츠메이칸대학이 주장했다. 학생 측이, 학생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론이다. ②는 메이지가쿠인대학, 와세다대학, 호세이대학의 설명에서 보이는 주장이다[37]. 이후 일본사립대학연맹(사대련)이 학비에 대하여 밝힌 견해이기도 하다[38]. ③도 많은 대학이 주장한 것이다. 와세다대학은 이러한 추가 비용을 학생에 청구하지 않는 것도, 학비가 시설의 사용료 및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④는 실습 및 실기 수업이 중지될 수밖에 없는 데 대한 내용이다. 와세다대학, 호세이대학은 이러한 것도 재학 기간에 걸쳐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측 주장 중, ①은 민법상 해석으로서는 부당한 것이 아닐 것이다. 또한 ④·⑤도 당장의 조치로서 타당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②와 같은 생각은 여태껏 대학 단체로부터 통일적으로 나타나온 것이 아니고, 대학 측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것도 아니다. 실제로 소수라고는 하더라도 시설정비비 등을 반환한 대학이 있는 것도, 앞서 다룬 대로다. 또한, 대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설정비비 등 명목으로 학생이 부담하고 있는 요금이 당해연도에 전액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당해 요금이 사용료로서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구태여 말한다면 ②는 2020 년 학비감액운동에 직면한 대학이 학비를 반환하지 않기 위하여 급조한 방편에 지나지 않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러한 대학 측 주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학생 측 주장대로 당장 학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학비 금액이 적절한지는, 어디까지나 그 용도 및 결정 과정에 따라 검증되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학비 내용에 관한 설명은 학생 요구 내용에도 있다(표 2 참조).

---

[37] 村田鈴音「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に対する明治学院大学の対応について」前掲、田中愛治（早稲田大学総長）「早稲田大学の学費に関する考え方について」2020 年 5 月 5 日（5 月 15 日更新）、田中優子（法政大学総長）「本学の学費についての考え方」2020 年 5 月 15 日。
(무라타 레오「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메이지가쿠인대학의 대응에 대하여」앞의 자료, 다나카 아이지(와세다대학 총장)「와세다대학의 학비에 관한 생각에 대하여」2020 년 5 월 5 일(5 월 15 일 갱신), 다나카 유코(호세이대학 총장)「본교 학비에 대한 생각」2020 년 5 월 15 일.)

[38] 일본사립대학연맹「私立大学の「対面授業再開」と「授業料等」に関する見解(사립대학의 '대면수업재개'와 '수업료 등'에 관한 견해)」2020 년 9 월.

(3) 학비의 성격

학생은 대학 측에 대해서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대학(와카야마대학·타쿠쇼쿠대학·가나자와대학·도쿄학예대학[39]) 학생은 고등교육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학도 국가를 상대로 재정적 조치를 요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논리는 국가 예산으로 일률적인 학비 반액화 및 대학 등에 대한 예산 조치, 두 가지 요구사항을 주축으로 하는 '일률 반액화 액션'으로 이어졌다. '일률 반액화 액션'의 취지를 담은 문서[40]에는, 국가에 의한 예산 조치가 학생의 출신 계층·국적, 대학의 규정 및 분야의 다름에 구애 받지 않고, 모든 학생과 대학을 지키는 데 이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41].

한편, 대학 측은 국립대학협회·공립대학협회·사립대학연합회가 연명하여, 유학생을 포함한 정규 학생에 대한 급부금을 확대할 것, 각 대학이 가계가 급변한 학생에 대하여 긴급히 실시하는 수업료 면제를 지원할 것, 학생 자택의 통신 환경 정비 및 통신료 부담에 대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42]. 학생의 과정[43]이나 소속 조직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공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점은 학생 측 요구와 공통된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 요망서와 학생 측 요구 간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즉, 학생 측이 공비 지원을 요구하는 데 이르게 된 과정에서 끊임없이 학비 수준과 내용을 문제시 해온 데 반해, 요망서가 요구하는 학비 감액에 대한 공비 지원은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대련이 주장한 앞의 ②의 견해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다치 키요토는 이러한 학생·대학이 주장한 내용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재학계약이 양자에 지우는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

[39] 이외에 도시샤대학의 서명 발기인인 학생도, 신문 인터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는 감액분을 국가가 보조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同志社大生、学費減額求める　ネットで署名活動「国が補助を」(도시샤대학, 학비 감액 요구하다/온라인 서명 활동 '국가가 보조를')」『아사히신문』2020 년 4 월 24 일자 조간(교토 지방판).

[40] 山岸鞠香（一律学費半額を求めるアクション代表）「国による一律学費半額と、高等教育機関への予算措置を求める要請書」2020 年 4 月 30 日。
(야마기시 마리카('일률 학비 반액을 요구하는 액션' 대표)「국가에 의한 일률 학비 반액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조치를 요구하는 요청서」2020 년 4 월 30 일.)

[41] 운동이 규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光本(미츠모토)『2020 年の大学危機―コロナ危機が問うもの―(2020 년의 대학위기―코로나 위기가 묻는 것―)』クロスカルチャー出版(크로스컬쳐출판), 2021 년, 82-89 쪽.

[42] 국립대학협회·공립대학협회·일본사립대학단체연합회「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応した学生への経済的支援に関する緊急要望(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긴급 요망)」2020 년 5 월 11 일.

[43] 저자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등을 아울러서 '학생의 과정'이라고 썼다(번역자 주).

서비스의 내용과 현황, 적극적으로는 대학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재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44]. 이것이 나타내는 것처럼, 2020 년 학비감액운동은 개별 대학이 재학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그치지 않고, (d)학비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논점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개별 대학의 틀을 넘어선 학비의 바람직한 모습을 묻는 관점은 학비감액운동에서는 보이지만, 대학 측에서는 부족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4) 학비감액운동의 의의

각 대학 학생에 대한 급부금 지급 및 학비 일부 반환·감액 등 결정 과정에 학생의 요구 활동은 어떠한 영향을 끼친 것일까. 빠른 시기에 급부금을 결정(2020 년 4 월 21 일)한 메이지가쿠인대학은 인터넷 언론사의 취재에 대하여 동 대학 학생의 서명 운동(4 월 14 일 시작)의 영향은 없었다고 답하고 있다[45]. 한편, 메이지가쿠인대학은 '일상적으로 대학에 전해지는 학생 및 보증인 분들의 의견·요구는 대학으로서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밝혔다[46]. 여기에서 학생의 서명과 '일상적으로 전해지는 의견'을 구별하는 논리는 명확하지 않다. 혹여 학생의 의견에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상적으로 전해지는 의견'에도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다.

타 대학에서도 급부금의 지급 및 학비 감면을 확대하는 이유로서 학생의 요구가 있었던 것을 드는 대학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학생의 요구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학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2020 년 학생 운동에 대해서는 신문과 인터넷 언론도 주목했다. 전국지 중에서 학비 감액 서명운동을 최초로 다룬 것은 4 월 19 일자 아사히신문이었다[47]. 단, 여기에서는 대학 이름 등 구체적인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4 월 22 일

[44] 足立清人「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よる混乱のなかでの大学「在学契約」についての覚書」『北星学園大学経済学部北星論集』第 60 巻第 2 号（通巻第 79 号）2021 年 3 月。
(아다치 키요토「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혼란 속의 대학 '재학 계약'에 대한 각서」『호쿠세이가쿠엔대학 경제학부 호쿠세이 논집』제 60 권 제 2 호(통권 제 79 호) 2021 년 3 월.) 이 논고는 본절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참고가 되었다.
[45] J-CAST 뉴스「署名活動の影響はあったのか？明治学院大、全学生 5 万円「英断」の根拠(서명 활동의 영향은 있었는가? 메이지가쿠인대, 전교생 5 만엔 '영단'의 근거)」 2020 년 4 월 24 일(https://www.j-cast.com/2020/04/24384911.html?p=all).
[46] 앞의 자료와 같음.
[47] 앞의 자료「大学封鎖、逆境の春 学生「学費減額して(대학 봉쇄, 역경의 봄/학생"학비 감액하라")」『아사히신문』2020 년 4 월 19 일자 조간(사회면).

‘FREE’가 기자회견을 열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 및 경제적 지원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각 신문사도 독자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각지에서 일어난 학생의 요구 활동을 개별적으로 다루게 되어 갔다[48].

일련의 보도를 통해 당시 자택 및 연구실 등에서 고립되어 업무를 하던 교직원에게도 알려져, 운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대학의 의사결정에도 알게 모르게 다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그 증거로 학비 일부를 반환한 4 개 대학(쿠시로공립대학, 도호쿠예술공과대학, 와코대학, 교토예술대학)은 모두 서명 운동이 일어난 대학 목록에 이름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 비공식적인 형태이지만 학생의 행동이 교원을 움직여,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예가 있었던 것이 학생들로부터 보고되고 있다[49]. 2020 년 학비감액운동과 그에 대한 대학의 대응은 맞물리는 부분이 꼭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의 요구가 대학 학비의 현황에 적잖게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 없을 것이다.

마치며

본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0 년 학비 감액 운동은 특별히 다뤄야 할 논리를 나타낸 것이었다. 또한, 대학과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만 2020 년 학비감액운동이 무상고등교육 도입에 어떠한 역할을 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 필요하다. 2021 년 여전히 학생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있다. 수도권과 관서권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많은 대학이 캠퍼스 출입금지 조치를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감액하거나 급부금을

---

[48] 「同志社大生、学費減額求める ネットで署名活動「国が補助を」(도시샤대 학생, 학비감액 요구하다/온라인 서명 활동"정부가 보조를")」『아사히신문』2020 년 4 월 24 일자 조간(교토 지방판), 「親が減収、バイト先休業…大学生困窮「学費減免を」 運動拡大、100 校で要求(부모가 수입 감소, 알바 가게 휴업…대학생 경제적 어려움 "학비 감면을"운동 확대, 100 개교에서 요구)」『마이니치신문』2020 년 4 월 28 일자 조간(사회면), 「京大ネット授業、給付金求め署名 学生ら提出(교토대 온라인 수업, 급부금 요구 서명/학생들 제출)」『마이니치신문』2020 년 5 월 6 일자 조간(교토 지방판), 「大学生 バイト収入打撃 愛媛大サークル調査「減った」「ゼロ」6 割(대학생 알바 수입 타격/에히메대 동아리 조사 '줄었다' '전무' 6 할)」『요미우리신문』2020 년 5 월 12 일자 조간(에히메 지방판) 등. 프리랜서 기자의 기사로는 石渡嶺司(이시와타리 레이지)「＃学費返還運動」に苦慮する大学～就実・明治学院は神対応も('#학비반환운동'에 고심하는 대학~슈지츠·메이지가쿠인은 놀라운 대응도)」2020 년 4 월 23 일. https://news.yahoo.co.jp/byline/ishiwatarireiji/20200423-00174838 이 있다.

[49] 東洋大学 学費減額を求める会「9 万円ならず、5 万円の給付金 決定」2020 年 4 月 27 日（change.org「東洋大学へ。大学施設閉鎖による春学期分学費減額の要望」の「進捗状況」）。(토요대학 학비 감액을 요구하는 모임「9 만엔에 못 미친 채, 5 만엔 급부금 결정」2020 년 4 월 27 일.)

지급하는 대학(및 급부액)은 2020 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의 대학에 대한 요구 운동도 침체되었다.

2020 년 운동이 제기한 학비에 대한 여러 논점이, 그 뒤 대학에서 어떻게 그 깊이를 더하고 대학의 현황에 영향을 끼쳤는지 검증해 나가야만 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인 학생 및 대학이 풀어야만 하는 과제일 것이다. 그것을 위한 주체를 학비감액운동을 계기로 생긴 조직, 학생과 대학 간 협의의 장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감사의 말

본 연구는 JSPS(일본 학술진흥회) 과학연구비조성사업(19K02864) 지원을 받았다.

---

* 저자 소개

미츠모토 시게루(光本　滋)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교육학 연구원 준교수(교육학·고등교육론). 최근 저서 : 공저『歴史の中の東大闘争(역사 속의 도쿄대 투쟁)』本の泉社(혼노이즈미샤) 2019 년, 단저『2020 年の大学危機 コロナ危機が問うもの(2020 년의 대학위기 / 코로나 위기가 묻는 것)』クロスカルチャー出版(크로스컬쳐출판) 2021 년. 메일 주소 : mitumoto@edu.hokudai.ac.jp